

91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여학생 협의회)



자주어성 조국사랑
제4대 여학생협의회

여학생 협의회장의 인사말 "사랑합니다. 300 신입여학우 여러분!"

부총장 김 미정

제4대 여학생 협의회장 김 미정

여학생 협의회장 김 미정

따뜻한 봄소식을 봄안 가득히 담고 노고언덕에 달려온 서강의 신입생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따뜻하게 인사드립니다. 벌써부터 교정은 신입생의 용성거림으로 활기차지고 더욱 청년의 자리 다와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선배, 동료를 찬족보는 자리인 O.R.이 여러분에게 많이 낯설고 생소한 듯도 하지만 젊은이의 진실된 언어로 모든 만남이 가득채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만남들이 더욱 사람을 소중하게 느끼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여러분이 대학시절 부딪히게되는 많은 고민과 열정들이 O.R.에서 만난 선배 동료가 재부로 남아 여러분들의 힘이되어 같이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4대를 맞이하는 여학생협의회도 여러분의 멋진 O.R.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각에서 벌어지는 여선후배의 간담회에서, 강연회에서 자로집에서 치열하며 그로인해 아름다운 서강인으로 만나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총장 김 미정

청년서장 20대 총학생회장 표 홍철

넓다란 평원, 그 위에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말뚝따위가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물질적인 부가 넘쳐나지 않은 만큼 원시적인 생활이지만 모두가 하나되어 평등하게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성 남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사와 아이의 생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계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사이의 관계가 돈있는 사람-돈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소유한 사람-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여성과 남성간의 서글픈 불평등의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윤과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

불평등은 그 어느때보다도 판을 칩니다. 법적으로 평등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법적인 평등으로 위장하고 나타나, 고도의 성차별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만연한 성 희롱, 임신배배, 취업차별

대학내에서도 어쩌면 보이지않게, 그러나 공공연하게 차별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보와 정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의식과 결코 떨어져 존재할 없는 곳이 또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청년은 젊기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희망과 가능성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람으로 확트게 되고, 참다운 용기로 열매 맺으며, 그것은 커다란 힘으로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뒤흔든 관점으로 왜곡시켜 거대한 폭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성차별. 이러한 문제역,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개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진공, 문제를 예민해진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나아가 성에대한 잘못된 인식과,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함께 알고 노력한다면, 이 노고언덕에는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인간관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성차별, 폭력의 장벽을 밀어내서 허무는 작업에, 함께 어깨걸고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서장의 주인으로 우뚝 설 자랑스런 여학생이 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학생 협의회

여학생들의 더욱 보다 나은 학생활동과 자주적 삶의 올바른 계적을 위해, 88년 노고언덕에 첫 출발을 가진 서강여학생협의회는 올해로 네살이 됩니다.

이제는 더욱 성장하여 네살이 서강여학생협의회는 각과의 활발한 학번별 여학생모임, 여학생 학회등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협속에 더욱 내실있어 지고 있습니다. 여학생협의회는 여성문제에 관심있어 하는 사람, 여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며, 서강인 모두와 함께하고자 하는 노고여인들의 넓은 가슴이고 치열한 고민의 장입니다.

여학생협의회는 과의 학번별 여학생모임, 여학생학회, 여학생회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보다 가깝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학생협의회는 더욱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근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C관 총학생회장 바로 앞층에서 여러분을 너그러워 그리움으로 기다립니다.



91학번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청지

1960년 계교이래 너무 적은 수의 여학생들(전교에 30명)의 모임이었던 청지는 70년으로 넘어가면서 문예지를 발간해왔습니다. 그러다, 80년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는 많은 문제에 대한 서강인의 고민과 함께 하고자 여학생교지로서 사회과학의 일 내용을 담아내던 청지는 다시 변신하여 90년, 여학생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여러분을 자주 만나고,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고민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 참, 올바르게 살고있는 91여학생을 수습위원으로 모집합니다. 청지방에는 91을 기다리는, 예타는 신배가 멋있게 막걸리 사줄 자금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찾아오세요. C관 2층 206으로 . . .

탁아본과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여 두발자국을 내딛으려하는 여학생 협의회 산하 특별기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핵가족화 현상과 저소득층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서 방치된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줄고자하는 노력들이 모아져서 사립 유치원을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고,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아침 일찍부터 퇴근 시간까지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과 부모들을 위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비영리 민간 탁아소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탁아본과는 이러한 탁아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곳을 주대상으로 놀이방과 공부방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위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우리 어머니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가사노동 부담 그리고 여성의 책임으로만 한정되어 지는 육아문제등 여성들이 안겨되는 문제들을 활동을 통해 느끼고 함께 얘기하는 속에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실천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봉사자의 성실함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수 있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집으로 인해 꾸준한 활동은 봉사자의 성실성과 인내심을 다질 수 있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제도교육의 모순과 사회 구조적 모순을 깨닫게 하며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인인 아이들이 사회적 폐단과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하는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심어주어 공동체적 삶의 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칫 낭만적이고 개인적으로 흐르기 쉬운 대학 생활에서 조그만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연대는 옆사람을 돌아보고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함이며 탁아본과는 그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라기랑
인니온파랑
친구하요-

탁. 아. 분. 과.



서초동 꽃동네 비니
하우스촌의 어린이가 쓴글

5학년 조전식

내가 커서 대통령이 되면 벌제를 업이고 다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
못사는 사람도 잘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하겠다. 나라가 잘 되게 하려 전쟁도 안 하고
통일을 만들겠다.
대학을 못가도 대학을 간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상님 저소득층 인대로
소관기관아트는 대모 들어주셨고
나는 요 소관 원로발바리제를
가고 싶고 그고 로우리아바
병을 발라 나게 해주셨고
그또우리시 구병안 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정은 발라 가게
해주셨고
꼭 소관이 로어 주셨고
준. 나. 정서진소영

“우리학교 여학생들은요 바람직한 여대생의 모습은요 ...”

* 아래의 글은 철학과 여학생들이 토론한 것과 우리학교의 여학우 남학우 한명씩이 쓴 글로 여 신입생들이 여태까지 자신에게 규정되어졌던 여자의 모습을 깨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堂堂하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철학과 여학우들이 쓴 “우리학교 여학생”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있으며 그것은 어느정도 보편성에 의해 판단된다. 하지만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를 규정짓는다면 그것은 선입견을 낳을 여지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 학교의 여학생 상을 언급하기에 신입생 여러분께나 재학생에게 어떤 선입견이나 환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연히 우리학교 여학생들만의 분위기는 존재하며 흔히들 하는 말은 “검소하다”와 “활동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런말이 있다. 80년대 중반이었는가 - 서강대에 귀거리한 여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서강대생이 아니다. 물론 검소하다는 기준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금은 많은 여학우들이 자신의 개성표출을 위해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서 검소하다는 것은 간단히 분수에 맞는 생활과 연결하면 될 것이다.

또한 서강 여학생들은 강하며 활동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는다. 아마 그 이유는 남녀평등이라는 과제를 고민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급현으로서 능동적 해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과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끝까지 처리하는 모습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표현한 몇마디로 우리학교 여학생상을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올바른 여학생상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여학생상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고민해 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맡은일을 책임감있게 해내는 여학우, 공부 잘하는 여학우, 성실한 여학우, 친절함 여학우, 잘노는 여학우, 맘이 아름다운 여학우 이 모든 여학생상은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진정한 자리매김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 남학우가 쓴 여학우

- 경제학과 86학번 문 아무개 (현재 당대장임)

두툼한 원서를 다소곳이 두손으로 받쳐든 자그마한 키, 짧은 커트머리, 흔히보는 색바랜 청바지, 이런 모습이 그 여학생과의 첫대면이었지요.

이제 강의실의 앞자리를 잡고서 맑고 또렷한 눈망울로 교수님을 뚫어 쳐라 바라보는 햇병아리의 모습은 이미 답을대로 답았다고 자처하는 (?), 그래서 교수님의 눈길을 피해 구석 뒤자리를 택하는 나의 모습속에서 묘한 미소를 짓게했지요.

5월 햇살 좋은 어느날 저녁, 처음가진 소주 한잔에 발개진 얼굴로 7시전에는 집에 들어 가야한다며 종종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리고 바쁜 시간이 흘러 그해 늦은 가을, 난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그대로인데 파마를하고 농구화를 신고 잠바를 입은, 한눈에 보기에 식칙해 보이는 모습으로, 전과는 전혀다른 그 여학생 ... , 길가에 있는 돌맹이 쫓은 힘껏 내지를 것 같았었죠. 그리고 어느날 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여자는 왜 일찍 들어가야 되지? 외박은 왜 안되지? 여자는 차별 받는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앞으로 남자가 하는 일은 다할 수 있어.”라고 위협천만한 (!!) 말을 했었죠. 난 남녀평등을 행위의 일치로만 인식한 잘못된 확신이 몹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혼자 서보려는 힘겨운 몸짓이 하나하나의 벽에 부딪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친구도 없이 홀로 걷는 모습 또한 예견했음에 걱정스러움을 가늠길이 없었습니다.

한동안의 헤어짐과 잊혀짐이 깨어진건 바로 얼마전이었죠. 친구를 통해 그 여학생이 이제 주위의 여학우들과 함께 여학생 모임을 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무엇보다도 남학생들이 하는것을 똑같이 하는 것, 자기만 열심히 뛰어서 차별받지 않는 것, 이런것이 남녀평등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옆의 친구들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한 사회, 인간다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그녀와 공유하게 되어 무척 기뻐합니다.

이제 파스한 봄이오면 다시 그 여학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보는 올바른 여대생

- 영문학과 89학번 조 옥경

일반적으로 '여대생'하면 떠올리게 되는 모습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흔히들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 질게 화장한 얼굴, 원가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들은 아닐까요? 사람들을 어떤 틀속에 가두어 놓고 규정해 버릴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아래서 알게 모르게 여대생의 모습을 이러한 것으로 규정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해전 마광수 교수의 '야한여자...'도 이러한 사회적인 의식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모습들이 분명 우리들 여대생의 모습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여학생들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바람직한 여대생의 모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서강대학교의 여학생의 모습은 '겸소하다', '소박하다' 일 것입니다. 소박하다는 것은 결코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름답게 꾸미더라도 결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우리들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개혁해 가려하는 당당하고, 힘찬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일부 물지각한(?) 남학생으로 부터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언제나 당차고, 힘차게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야할 바람직한 여대생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침하고 소극적이며, 개인적으로 길들여진 삶을 그대로 살다가 온 많은 남자 만나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삶의 전부로 알려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당당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대생,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이웃에 눈을 돌릴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가진 여대생이라면 화려하지 않을 지언정 진정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대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 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슬기로운 서가으이 딸들이 되시길 선배들은 기원합니다.

90년 한해

자주여성 사랑실천 1200 여학우와 함께한

제3대 여학생 협의회는 이랬거든요 !!

◎ 90 신입 여학우의 날 (90.3)

- "올바른 남녀관계를 위하여 강연"과

"희망사항"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경연

"입학하고 뭐 해보고 싶니?"

"글쎄요, 멋진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

여협 일꾼들은 각 스쿨의 청년서장님들에게 우선 올바른 남녀 관계에 대한 삶의 진리부터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남녀가 다르게 자라오기는 했지만, 이제 함께 자주적인 여성, 민주적인 남성으로 커갈때만이 올바른 남녀 관계도 이룩된다는 것이었죠. 결국 신입 여학우들은 "옆에 있는 친구의 아픔을 함께하는 여자"를 희망사항으로 뽑더라구요. 어떤 남자가 희망사항으로 뽑혔을지는 글쎄요?

◎ 수학과 여학생 화장실 되찾기 (90.4)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버린 남자화장실 앞에서 경악했던 수학과 여학우들, 그렇지 않아도 가뜰이나 부족한 여자화장실을 아무런 광고도 없이 철거했다는 것은 이공대 여학우들에 대한 배려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아니었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 권리를 찾고 이를 단결하여 쟁취하는 것, 이는 이공대 여학우들이 변화하는 한 계기가 되었음직 하지요.

◎ 어린이 대동계 (90.5)

- "꾸러기랑 언니, 오빠랑 친구해요"

5월 5일, 여학생 협의회 탁아분과는 지난 89년부터 활동해왔던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 어린이들과 어우러지는 어린이 대동계를 마련. 철거차움속에서도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곳곳이 살아가는 서초동 꽃동네 어머님들의 귀여운 아들, 딸들과 즐거운 대동계를 함께 하였다.

함께 그림그리기등 다양한 놀이도 하고, 철거차움때 배운 "딸들아 일어나라"라는 노래도 함께 배우고

⑤ 신방과 여학생모임의 5.9 투쟁 (90.5)

- 동맹휴업 결의를 위한 서명운동

민자당의 장례식을 맞으면서 신방과 '89여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토론. 5월9일 동맹휴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민자당의 3당합당 폭거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모아진 신방과 여학우들의 의지는 서강 동맹휴업 결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⑥ 종교학과 여학생회의 대동계 행사 (90.5)

- 여성, 평화, 통일 전시회

여성,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국문 80 김용립 선배의 그림을 전시해서 서강 학우들과 평화통일도 다짐하고, 전시회 업서 팔아 돈도 벌고, 장사일 속에 선후배도 친해지고 역시 뜻을 모아 같이 하는 뜻있는 일이 있다면 단결이 더 굳어진다는 것을 종교학과 여학우들이 보여주더라고요!

⑦ 철학과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토론회 (90.5)

'여학생 휴게실이 있으면 남학생 휴게실도 있어야지'

언뜻 매우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이 문제제기가 실제로 학교에서의 여학우들의 처지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과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임을 깨닫기까지, 바로 이것이 철학과 여학우들이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찾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⑧ 여성 농민 장터 (90.6)

- 농촌활동 부너반 준비

농촌에서 가장 힘들게 살을 꾸려나가고 계신 농촌여성들을 이해하고자, 여학생 협의회는 농촌여성의 정서를 배우는 자리로 여성농민 장터를 준비. 여성 농민 관련 자료등을 판매하면서 과단위 농촌 활동 준비의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⑨ 임대표 어머니와의 간담회 (90.10)

- " 딸들아! 하나된 조국에서 살자꾸나 "

통일의 꽃 임수경 대표가 '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 참여차 북한을 방문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임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대모에 함께 어깨걸게 되신, 임대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이땅의 어머니모습을 배우는 자리로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국은 하나다'라는 결의를 모았다고

⑩ 오손도손 이야기하기 (90.10)

- 여학생 협의회 평가를 과 여학우들과 함께

여학우들이 여학생 협의회 90년 상반기를 평가하는 '오손도손 이야기하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 여학생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아졌으며 과 여학생 모임을 소중히 일구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였습니다. 참가한 사람 모두가 공유했던 것은 여학생 협의회 발전은 과 여학생 모임이 굳건히 서고 튼튼해지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자각이었다고



여학생 모임은 이래서 필요하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300여 신입 여학우 여러분.

산뜻고 물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대학입시를 치르고 이제 당당한 서강대생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보람되고 힘찬 모습이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산뜻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앞으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들, 이미 저희들이 겪어 왔던, 어쩌면 이미 겪었을 지도 모르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놀이 문화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 봅시다. 대학 사회내에서 흔히 접하게 될 술자리들, 서로를 좀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자리죠. 그런데 분이기가 무르익어가면 언제나 나오는 음담패설들이 여학생들의 어울림을 막는답니다. 당황하고 무안해 할 수록 더 재미있어 하고 지기 싫다고 더 심한 음담패설로 맞받아치면 (?) 무슨 여자가 저러냐고 흥잡히니 나원참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둘째, 취업에서의 차별을 살펴볼까요?

여자라고 등록금 반만 내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힘들게 4년 공부하고 나면 남는 것은 '넌 여자니까 안돼!'라는 기업들의 따끔한 충고(?) 한마디죠. 하지만 우리 여학생들은 80%이상 취업을 바란다니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 없군요. 그렇다면 왜 여학생들은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할까요?

셋째, T.V.나 영화, 잡지에 '요즘 여대생들의 성 풍속도'라며 '요즘 여대생들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베드팅도 불사한다.'라는 내용이 실린적이 있습니다. 마치 여대생들을 환락을 쫓는 불나비 마냥 묘사해 놓았더군요. 그런가 하면 여성의 모습은 순종적이고 집안일에만 헌신하는 것이 이상향인양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는 여성은 비정상적이고 가정울바르게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기 일쑤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문제점만 잔뜩 늘어났더니 힘이 바지네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모여서 함께 풀어야 한다" 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학우들, 내 친구들, 선배 언니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문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문제들을 풀기위해 모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서 풀려고 노력하는 학우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해결들은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고 풀어가면서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강 땅에는 이런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에 계모임이 건설되었으며 여성문제를 좀더 잘 고민하고자 여학생 학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여학우 하나 하나의 문제의식을 모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학우들의 문제의식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임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모아내는 장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학생회"라는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위 글은 각과 여학생 오리엔테이션 준비주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한 내용을 전산과 89학번 김 문영 학우가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과 여학생들 문요...

전산과 여학생들은요...

거~의 장남이요.

누가 그러세요.

당차고 지레들나나...

어 1월까?

아마 잘 나가는 여학생 학회와

학번별 계모임에서 여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이라고.

참! 그러지요. 이런 비밀인데

학회와 계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대요. 들세!-



동문과 여학생모임은 이런 하강이 맞습니다.

안보이는 데 있어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지를 걸어서 '안녕'을 애지중애 같이 쓰는

따뜻한 마음을 더없이 내어줄 줄 아는

무게 없는 사랑으로 서로 기대 수 있는

사랑의 끈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줄 때에 대해서도

다른 여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어떤 군단과 해군인 군인일까요?

어머니는 남...라 물어

조금

친구

동반자

소망

꿈

-동문과 여학생모임입니다-

자랑스런 수학과 91학번 여학우들에게

길거리의 공공 먹어볼은 먹은도 이전 파스한 햇살에 녹아 스러지는 모즈
을 머리에 새록 새록 피어나는 생각이 일구나. 신입생으로 관심받고 생각
하던 90년도도 지났고, '이제 나도 선배구나' 하는 뿌듯함도 생기지만, 벌써
부터 찬신한 90, 귀여운 90은 몸대강대 일고 오로지 91학번만이 (특히 여학
우) 관심의 초점은 이루어 한편으로 섭섭하다. 알고보면 나도 상큼한 여
자인데 ...

이제 대학생 - 파마머리에 화장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M.T.도 가보고
독후감 본당도 막으면서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에게 해 주고 싶은 많은, 주위 친구들의 기쁨은 더할 수 있고 슬픔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절의롭지 못한 행동과 케케묵은 사고호부터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이땅에 뿌리내려 지친 사단들에게 한자
니 그들은 준 수 있는 온온한 나무로 자라나는 거야. 정아, 민영, 유진,
은규, 소정, 은아, 윤희, 현주, 인선, 선미, 수정, 정희 모두 건강하게 살
아가길 바라며 이만 많은 추억과 해. 그래 그대 서강의 자람이든 서강
그대의 자람이든

철학과 여학생!

우리와 여학생들은 어느 타라라는
다른 우리만의 개성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다른 과 여학생들도 자신
나름대로의 개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철학을 하는 철학도로서 그저 무심
히 흘려버리는 현상을 다시한번 생각
해보고 반성해보면서 그것의 원인과
근원에 대하여 고민하는 우리과만의
개성,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옳은 판단은 일상성에 젖어있는 기상
세대여 극복하지않고 반드시 이루어
의지못한 어느 타라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학과 여학생부는

91학번 여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실천하는 사회학과에서는 91년도 새로운 부서
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성적별 문제가 바로 이 사회의 모순이 반영
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종전의 여학생 소모임을 계승 발전시켜 마
침내 여학생부를 탄생시켰습니다.
91학번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갈 이 서강
캠퍼스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문과 여학생 모임

신선한 91학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문과에 있는 여학생 학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영문과에는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학교 여학생의 1/5을 차지할 만큼 더구나 여학생이 적은 학교에서 절대적인 수의 여학생을 확보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학생이 제각기 따로 떨어져 살다보니 같은 학번 여자 친구들조차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취업차별과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받았던 성차별 교육으로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남자들과 같은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여성학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89학번 계모임 '가이네'를 만들었습니다. '더사세', '가이네' 어떠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임을 통해 함께하는 기쁨을 더불어 느껴보지 않겠어요?

화공과에 들어올 여학생 여러분!

여학생이 소수인 관계로 남학생과 이리저리 섞여 다니긴 하지만 "뭔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여학생들과 모아서 얘기하고 싶은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서로 모아서 얘기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인 여학생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해서 서로의 얘기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눕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죠?

화공과 화이팅!!
여학생



우리 신방과 여학생 모임은요

'90 이그마스 ('악마들'이라는 뜻), '89 꽃피기 ('꽃반지'라고), '88 예지회 ('예쁜 자매회') 이것이 바로 우리 신방과 여학생 모임의 이름이에요.

우리들은 이 모임을 한달에 한번씩 갖는데, 이때는 생일인 친구 축하도 하고 그동안 쌓아 놓았던 하고 싶었던 얘기 - 요즘은 어떻게 지낸다. 참을 사일이 잘되겠다더라. etc. - 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각 학번 모임이 모여서 전체 여학생 모임인 '마음 굽히기 사랑 나누기'가 되는데 이 모임에서는 똑같이 예쁜 T도 만들어 입고 여선·후배간 대한의 시간도 갖아서 대학생학에서 여학생으로써 느끼는 고민, 취업문제, 여성문제 등을 얘기해요.

물론 여성학 학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찾지요.

남학생들은 우리 여학생 모임이 부러워 죽겠대요!



화학과 여성학회 (화제여를 가림)

남학생들은 졸업성적이 평점 2.2만 넘어도 취직을 할 수 있는데 왜 여학생들은 3.0이상 맞아도 취직을 갖기 어려울까? 왜 가사일은 여자만 하는 거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는 거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성차별 문제를 느끼지만, 그 원인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제법 때 버리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화학과 여성학회를 만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회과에서는 88학번 1인, 89학번 1인 그리고 학회의 실질주체인 90학번 4인이 모여 세민동 학회준비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화학과 여성학회 활동을 소개하면 1월31일부터 있을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차별문제에 대한 방법론이 있습다. 그리고 학기중에는, 성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우(물론 남, 여 모두)들을 중심으로 성차별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회활동과, 그대용들을 일반학우들에게 알려나가는 일 (대자보 활동, 간담회 등) 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학생 모임, 여성학회 그리고 학생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 의식을 깨뜨려 나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사회과 여성학회 그루까 (그들이 함께 무익으로 들어가는 깨달은 ?)

*모임에 참여해도 복귀하고 무로 강제하지 않음 여학생들 반성해요!!!

"우리 학교에 금남의 구역이 있거들랑요."

학생회관(C관) 2층, 오른쪽 복도로 가다보면 연극반, 청지, 탁아본과, 여학생협의회 라고 쓰여진 팻말들 사이로 '여학생 휴게실'이라 적힌 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앉아서 혹은 누워서 쉬기에 알맞은 여러 개의 쇼파와 레포트를 쓰거나 공부를 하기위한 탁자가 놓여 있어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몸이 불편할 때등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여학생만을 위한 휴게실은 있는데 남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은 없나구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남녀 공학 대학에서 남학생들은 교정 곳곳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잔디밭에 마음대로 누워 쉴 수도 없고, 신체구조 상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가지 예기치 않는 상황들에서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남녀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이라면, 평등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배려해 주는 가운데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남학생들의 다소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1200 여학우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학생 휴게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물론, 서강의 여학우 한사람 한사람이 이 방의 주인이죠. 그래서 내방을 소중히 하듯이 우리들 모두의 쉼터인 이곳을 항상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만드는 것이 이방의 주인이 할일이죠.

이제 신입 여학우 여러분이 직접 이용해 보면서 스스로 이 방의 주인이 되어 보시지 않겠어요?



== 어 선후배 간담회 ==

대학문에 서서 이것 저것 새로운 것들, 낯선 선배들을 만나가면서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한 우리 여신입생들이 좀 더 편안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수 있고 여 선배들을 가까이 만나면서 자신의 대학모습을 그려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과마다 여러가지 다른 상황들로 인하여 프로그램이나 시간배정 등은 달라질수 있지만 아무튼 파투리 남아도는 시간이라도 여학생들이 모일수 있는 순간이면 좀 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입 여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여 선배님들께 궁금한것 많이많이 물어보세요!!!

== 김언희 ==

남녀공학의 대학에 들어오면서 우리 신입생들은 이성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오게 됩니다. 고등학교때와는 달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이성 친구, 선배들, 원지 이성앞에서는 자신있게 나를 표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자, 남자 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나와 함께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이성 친구, 애인을 사귀어 가는데 있어 건지해야 할 기본적인 관점들을 전교조 선생님께서 아주 쉽게 이야기 해 주실 것 입니다. 앞으로 주위 사람들과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죠? 좋지 말아요 !!!

— 위의 프로그램들은 각 과 여학생 준비 주체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자료집도 모두 함께 준비 했구요. 내용이 맘에 드시지요? —

선택가 될하는 교양필수 서적들 !

소설

고백, 윤 정모 씀 (꽃빛출판사)
계속 베스트셀러, 이 책 모르면 간첩(?)
윤 정모씨를 더욱 유명하게 한 작품
여성문제와 한국사회의 아픈 현실을 쓴
윤정모씨의 자전적인 소설.

소설

어머니, 막심고리끼 씀 (석탑출판사)
세계에서 유명한 사실주의 문학작가, 러시아의 자랑
막심고리끼의 최고의 작품
가슴아픈 사연들, 한여성의 변화에 눈물흘린다.

소설

아리랑, 남 웨일즈 씀 (동북출판사)
식민지 조국에서 만주벌판의 독립투사의
길을 선택한 김산, 어렵던 우리의
역사에 풍부함을 주고 있다.

만화

북해의 별, 김 해린 그린
민주주의를 향한 젊은이들의
불타는 마음, 프랑스 혁명의
한 모습이다.

만화

올웨스의 창
소설보다는 만화가 더
좋다는 일반적인 평,
세계적 대사변인 러시아 혁명을
중부하게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스에게만 꼭 빠지지 않으면

교양

집대기를 벗고서 1, 2 (동북출판사)
우리가 사실 굉장히 속아 배워온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책 -
아 속아온 내 청춘, 젊음이여 지해로와라!

교양수필

또하나의 조국, 루이제 린저 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읽고 밤을
지새웠던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아 나온 수필집
또하나의 조국, 이북방문기를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그린 공적 작품, 북한의 실상은 ?

수필

지금, 물어둔 그리움, 도 종환 씀
"점시꽃 당신"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많은 이에게 눈물을 흘게했던 장본인 도종환씨가
전교조 해직교사라니! 도종환 선생님의
새롭고 고운 수필집을 읽어 보시다.



자주 여성 진군가

작사: 박준신

작곡: 홍자연

서강 언덕에 피-어 나 는 해방 세상 열구 어

넓은 어머니 가슴으로 열 어 나 는 우 나 - 튼 어 림

에 서 움 트 는 자주 여 성의 꽃 무 리 되 어

우 리 가 는 - 앞 길 에 만 족 해 방 의 진 군 소 리 자

자주 민주 통일 의 세 상 위 에 높 - 여 학 생 회 건 설 하 자 사 랑

실 천 함 성 으 로 자주 여 성 의 깃 반 노래 자.

가 략

그리기 힘느네!

저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Computer를...

요즘에는 Computer를 일상 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마
련하였으면 좋은데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요구와 미래에 알맞는 Computer를 만들어 드립니다.

가 략 컴 퓨 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2 - 11

(서강대 정문 가람 기획)

TEL : 719-7410